

출 장 자	소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위	국제개발협력 센터장	성명	김은경
출장기간	2015. 6. 30. (월) - 2015. 7. 4 (토)		출 장 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출장목적	<div>□ OECD는 4년에 한번씩 국가별 정책평가와 공공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동료국가 검토회의의 이름으로 평가를 하고 권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카자흐스탄 국가 동료검토회의에서 젠더요소가 정책과정에 통합되는 정도와 현황을 젠더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하고자 함. (*참고: 카자흐스탄은 2013년, OECD에 옵저버 자격을 신청한 바 있음.)</div> <div>□ 본 출장자는 카자흐스탄 정부를 방문하는 OECD 대표단과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의 성 주류화 정도를 평가하고 한국여성정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참가의 목적으로 하였음.</div>					
경비부담	비에산					
주최기관	OECD,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회의명		협력기관/참석자		회의내용		
OECD 카자흐스탄 젠더정책평가(Gender Policy Assessment in Kazakhstan)를 위한 동료 검토 회의		카자흐스탄 경제부, 통계청, 법무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위원회 등		<div>□ 카자흐스탄 여성정책 검토</div> <div>□ 한국여성정책경험 공유</div>		

OECD 카자흐스탄 젠더정책평가를
위한 동료검토 회의 참석
(출 장 보 고 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1. 출장 개요

- 회의명 : OECD 카자흐스탄 젠더정책평가(Gender Policy Assessment in Kazakhstan)
- 일시 : 2015. 6. 30. - 7. 3.
- 장소 : 카자흐스탄, 아스타나(Astana)
- 회의주관부서 :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OECD.
담당자: Pinar GUVEN, Policy Analyst
- 회의 목적 :
 - OECD는 국가별 정책평가와 공공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동료국가 검토회의의 이름으로 평가를 하고 권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카자흐스탄 국가 동료검토회의에서 젠더요소가 정책과정에 통합되는 정도와 현황을 젠더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하고자 함.
(*참고: 카자흐스탄은 2013년, OECD에 옵저버 자격을 신청한 바 있음.)
- 회의 주요내용
 - 이번 조사와 회의에서는 카자흐스탄의 1) 주요 제도적 및 정책 요소들과 2)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정부접근을 포함), 3) 정책일관성과 정책, 예산 및 법에서의 성 인지적 접근들에 초점을 둘 예정임.
 - 이 평가는 2014년 OECD 보고서(Women, Government and Policy-Making in OECD Countries: Fostering Diversity for Inclusive Growth)에 연계된 정책제안을 끌어올 것이며, '공적영역에 대한 OECD 양성평등 위원회'(OECD Council on Gender Equality in Public Life)의 권고안을 좀더 정밀화 하는 작업이 될 예정임.
- 본원 참가자 자격 : OECD 동료 검토자
- 참가자 역할
 - 1) 카자흐스탄 정부관료들과의 정책대화 참여
 - 2) 한국의 우수 사례 공유
: 우수사례는 카자흐스탄 젠더정책 평가 보고서에도 수록될 것임.
 - 3) 평가보고서 검토, 권고안 작성, 자문제공 등

2. OECD 카자흐스탄 젠더정책 동료검토 참가자 명단

- Tatyana TEPLOVA, Deputy Head of Division, GOV/GRP, OECD
- Michael A. O'NEILL, Policy Analyst, OECD
- Pinar GUVEN, Policy Analyst, OECD

(pinar.guven@oecd.org, 젠더담당자)

- Evgenia KOROTKOVA, Policy Research and Advice, OECD
- OECD peer 김은경, Director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South Korea
- OECD peer Paweł Choraży,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the European Social Fund,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Poland

3. OECD Peer Review 절차



*출처: <http://www.oecd.org/about/whatwedoandhow>

이번 카자흐스탄 동료검토는 젠더정책과 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검토로 구성되었으며, 2015년 6월, 자료수집과 현지방문을 통한 사실확인(fact finding)을 거쳐 향후 2차례의 현지 방문이 더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는 2016년 7월 이후 발간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4. 세부일정

일 시	내 용	장 소
6. 29. 월	인천공항 출발 - 아스타나 도착	
6. 30. 화	카자흐스탄 경제부, 학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경제부 회의실 호텔 회의실(화상회의)
7. 1. 수	교육과학부, 법무부, 입법 연구원, 보건사회개발부, OSCE 지역사무소	경제부 OSCE 지역사무소
7. 2. 목	통계청, 국가인권옴부즈맨, 노동사회보호부, 여성위원회, 아스타나 Akim 중앙사무소	경제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위원회
7. 3. 금	OECD 대표와 동료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회의 아스타나 출발	호텔 회의실
7. 4. 토	인천공항 도착	

5. 김은경 전문가의 검토의견 (OECD 제출)

카자흐스탄은 아시아 개도국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젠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한 상황으로, 젠더정책의 실행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가로 보여짐.

여성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and Family)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의 기본적 역량, 예를들면 사무국 인력(5명)이나 예산 등이 너무나 부족하여 젠더정책을 충분히 실행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은 한국여성정책에 대한 소개를 듣고, 한국여성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는 등, 한국여성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비롯하여 역량강화와 교류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음.

○ 제안사항:

여성위원회는 젠더정책을 위한 문서작업과 젠더 도구들(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 통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함.

예를들어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성관련 부처(ministry)가 있고, 미얀마나 베트남의 경우, 여성관련 부처가 없지만 부처 단위내에 양성평등국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 부서에서 젠더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음. 또한,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여성연맹이라는 전국조직이 있어서 이들이 정부의 집행조직은 아니지만, 여성관련 정책을 연구하거나 여성폭력관련 센터를 운영하는 등 젠더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음.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에 1순위 제안은 여성관련 집행부서를 만드는 일이며, 부처 차원의 신설이 어렵다면, 2순위 제안으로 젠더 Think-tank, 즉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같은 젠더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임. KWDI는 한국에서도 여성부보다 먼저 신설되었으며, 모든 분야의 젠더정책을 만드는데 기반을 제공하여 왔음. 이는 한국의 모델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3순위로는, 젠더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임. 각 부처 젠더정책담당자들을 비롯하여 여성위원회 사무국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젠더정책이 어떻게 도입되고 어떻게 발전해나가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젠더정책의 전달기제를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임.



카자흐스탄 정부청사



카자흐스탄 국가여성위원회 방문

또한 현재, 국가여성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과 무관한 위원장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서, 젠더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음.

젠더이슈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부족함. 카자흐스탄은 여성의 정치참여나, 공공분야 및 노동참여에 여성비율이 좋은 편인데, 이것이 오히려 카자흐스탄 정부로 하여금 젠더정책을 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젠더이슈를 다루는 인력의 수는 사실 젠더정책의 발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카자흐스탄의 젠더정책 전담인력의 수는 상당히 부족한 편임.

젠더챔피언이 필요함. 많은 부처들이 젠더와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젠더정책을 책임질 전담부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더 발전되고 심화된 젠더관련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임. (성별영향분석이나 젠더예산 등)

또 하나의 측면으로, 젠더훈련(gender training)이 필요함. 현재 법률안에 대한 성 인지관점의 평가가 없는데, 법이나 정책에 대한 성 인지 관점의 논의가 필요할 것임. 예산에 있어서 젠더에 대한 고려는 현재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임. 평등에 대한 개념이 가족이슈와 전통적인 가족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음. 여성들은 그들이 좋은 아내와 좋은 어머니 일 때 역할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음.

6. 카자흐스탄 국가여성위원회의 반응

한국여성정책 중,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100가지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KWDI라는 젠더정책의 think-tank에도 관심을 보였음. 그밖에, 여성가족부라는 전담부처를 통해 생산해낸 많은 젠더정책에 감흥을 받았고, 한국의 여성정책을 더 알기위해 방문을 희망한다고 하였음.